P-110

인조혈관 동정맥루 감염증의 임상적 양상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신미정 · 박진아 · 윤정민 · 장윤경 · 김영수 · 최범순 · 김형욱 · 김병수 · 김영옥 · 송호철

목 적 : 최근 혈액 투석 환자들의 고령화와 당뇨병, 장기간 혈액투석을 하는 환자가 증가하면서 인조혈관 동정맥루를 사용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동정맥루의 감염증은 흔한 합병증이고 혈관 통로 폐쇄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나 국내에서는 임상 보고 바가 없어 동정맥루 인조혈관 동정맥루 감염증의 임상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성모자애병원, 성가병원, 성빈센트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1997년 이후 인조혈관 동정맥루 감염증으로 치료 받은 82명의 환자, 84예를 대상으로 감염경로, 원인균주, 치료방법 등을 후향 분석 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56세 (48-86세), 남녀 비는 33:51, 원인신질환은 당뇨 39예, 비당뇨 45예였고 인조혈관 동정맥루 수술 후 감염까지의 평균 기간은 11.9개월 (4일-92개월)이었다. 균 동정이 가능했던 45예 중 37예 (84.1%)가 포도상구균이었으며 포도상구균 이외 그람양성균이 5예 (13.3%), 그람음성균 3예 (6.6%)였다. 감염 경로는 혈액 투석시 정맥 천자와 연관된 경우가 48예 (56.5%), 수술장에서 동정맥루 시술 후 감염된 경우가 24예 (28.2%), 동정맥루 협착증의 치료로 이용되는 경피적 혈관확장술 후에 발생한 경우가 5예 (5.9%), 그 외 인조혈관의 감염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나 다른 부위의 감염의 증거가 없고 혈액배양검사에서 균이 동정되어 인조혈관 동정맥루의 감염증을 의심했던 경우가 4예 (4.7%)이었다. 이중 21예 (25%)에서는 항생제 단독으로 치료하였고, 인조혈관의 부분적 제거를 포함하여 인조혈관을 유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던 경우가 26예 (31%), 감염된 인조혈관 전체를 제거하여 치료했던 경우가 37예 (44%)이었다.

결 론 : 인조혈관 동정맥루 감염증의 가장 흔한 경로는 혈액 투석시 정맥천자와 관련이 된 경우가 가장 흔하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경우 인조혈관의 유지 (salvage)가 가능하므로 동정맥루의 정기검사 및 무균 조작과 함께 정확한 천자 방법 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다.